

## 『書目答問』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박 재 혁\*

## 〈목 차〉

- |                   |                  |
|-------------------|------------------|
| I. 緒 言            | IV. 分類上の 特性和 問題點 |
| II. 『書目答問』의 編纂過程  | 1. 經部            |
| 1. 編纂背景           | 2. 史部            |
| 2. 編纂動機           | 3. 子部            |
| III. 『書目答問』의 分類體系 | 4. 集部            |
| 1. 「四部法」의 修正      | 5. 叢書와 別錄        |
| 2. 叢書와 別錄의 獨立     | V. 結 言           |
|                   | Abstract         |

## I. 緒 言

『書目答問』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治學門徑의 案内書로 中國 古籍의 目錄과 版本을 연구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書目으로 알려져 왔다. 이는 본래 초학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을 선정하여 수록하고, 이 중에서도 어떤 판본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 편찬된 일종의 讀書家 書目이다. 특히 본 서목이 편찬된 清末에는 학문적으로 考證學이 完熟의 경지에 있었던 시기였던 만큼, 서적의 選定이 매우 적절하고 그에 대한 평가도 비교적 타당할 뿐만 아니라, 西洋文物의 東漸으로 서양의 새로운 翻譯書가 많아져서 이

\* 대림전문대학 문헌정보과 조교수

를 기존의 舊籍과 함께 수용해야 했던 시기였으므로, 분류체계상에서 다른 書目體系를 踏襲하지 않은 독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이 注目된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우선, 概述書로 僑衍瑄의 “書目答問概述”(1976)이 있고, 『書目答問』의 분류체계에 대하여는 梁奮平的 “書目答問與四庫全書總目小學類分類之比較”(1976)와 王國良의 “書目答問與四庫全書總目雜史類分類之比較”(1977)가 있으며, 梁子涵의 “書目答問著者的推測”(1957)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일종의 개술서이거나 小學類의 분류나 雜史類의 분류 등 지엽적으로 분석된 것에 불과하며, 지금까지 『書目答問』의 분류체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書目答問』이 편찬된 시대적 배경과 그 편찬동기를 고찰하고, 둘째로는 『書目答問』의 撰者에 대한 異說의 진위여부를 밝히며, 끝으로 『書目答問』의 분류체계를 기존의 四庫法과 대비·분석하여, 『書目答問』만이 지닌 분류체계상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 II. 「書目答問」의 編纂過程

### 1. 編纂背景

張之洞<sup>1)</sup>이 편찬한 『書目答問』은 교육을 위한 讀書家 書目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편찬배경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清末 당시의 교육·문화적 상황을 우선 살펴보고, 張之洞의 위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만주지방을 중심으로 건립한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淸朝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국을 통일한 후 漢族을 비롯한 타민족에 대해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강력한 淸주전제정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청조

1) 張之洞(1837-1909) 字가 香濤, 또는 孝達이며, 號는 壺公 또는 無競居士이며, 諡號는 文襄이다.

의 강력한 정책은 교육과 문화에도 적용되었다. 즉 “민중의식을 봉쇄하고 지식인의 사상을 규제하기 위해 명조때 실시된 八股文으로 인재를 뽑았던 과거 제도를 답습하였고, 그 내용도 四書五經등 유교경전으로 하여 당시 지식인이었던 지주계급에 대해 회유책을 쓰기도 했다. 또한 봉건통치를 유지하고 옹호하는 程朱學을 힘써 장려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三綱五常과 名敎속에 가두어 두려고 하였다. 한편 문화적으로도 탄압정책을 써서 서적을 훼손하고 文字獄을 대대적으로 일으켰으며, 학문에서는 정치와 실제문제에서 벗어나 고서적의 종이 더미속에 매몰되게 하여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어리석게 만들었다.”<sup>2)</sup> 이같은 漢人의 민족사상에 대한 淸朝의 억압정책은 白蓮敎徒의 반란 등의 內亂을 야기시켰고, 이로 인해 淸朝의 경제가 피폐해짐은 물론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을 自招하여 청조의 몰락을 가속케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1838년에 이르러 아편수입의 폐해와 銀의 유출로 중국의 경제가 더욱 곤란해지자, 이를 막기위해 宣宗황제가 林則徐에게 명하여 廣東에 있던 영국상인의 아편을 태워버리고 아편수입을 금지시킨 것을 구실로 淸英間에 일어난 아편전쟁을 계기로 영국을 비롯한 서양의 열강들은 무력으로 중국의 문호를 개방하게 하고 南京條約(1842년), 天津條約(1858년), 北京條約(1860년) 등 일련의 불평등 조약으로 중국은 각 분야에서의 주권과 많은 영토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內亂과 서양의 제국주의 침략은 당시 중국의 모든 선각자들에게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으며, 이는 교육을 통해서만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면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던 인물로 林則徐, 曾國藩, 左宗棠, 李鴻章, 張之洞, 康有爲, 梁啓超 등을 들 수 있다.<sup>3)</sup> 이들 중에서 교육개

2) 趙矢元, 馮興盛 編. 중국사연구회 역. 『新編中國通史綱要：近代部分』. 서울: 청년사, 1990. p. 3

3) 沈炳哲. 『張之洞의 教育改革論 研究』. 淸州: 韓國敎員大學校 大學院, 1996. p. 1

혁의 이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저술하고 신학제의 제정에 직접 관여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書目答問』을撰한 張之洞이다.

그러나 이 撰者에 대해서 여러 가지 論이 제기되고 있다. 즉 康有爲는 『書目答問』이 원래 繆荃孫의 저작이나 張之洞이 이를 얻어서 출판했다<sup>4)</sup>고 하였으며, 葉德輝도 『書目答問』이 繆荃孫의 손에서 나온 것이며, 사실 南皮(張之洞) 자신이 쓴 것이 아니다<sup>5)</sup>라고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繆荃孫이 撰했다는 說에 대해서 梁子涵은 葉德輝가 평소에 繆荃孫과 친분이 두텁고 그의 여러 책중에 있는 題跋에서 繆荃孫을 推仰하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보아 이는 葉德輝 자신의 감정적인 편견에 불과할 뿐 사실적인 근거는 없다<sup>6)</sup>고 하고 있고, 또한 柳詒微도 “繆荃孫이 代撰했다고 한 것은 葉德輝가 너무 성급하게 말한 것 뿐이다”<sup>7)</sup>라고 일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반해 繆荃孫이 四川에서 張之洞의 문하생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繆荃孫이 張之洞이 주관하는 『書目答問』의 편찬사업에 당연히 참여하여 단순히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일반적인 추측도 있으나, 이 역시 假說일 뿐,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梁子涵이 이에 대해 “요컨대, 『書目答問』의 選書와 分類가 완벽한 것은 아니나 청말의 여러 서목중에서도 상세하고 정확한 書目的 일종이다. 이러한 書目을 편찬하는 작업은 張之洞과 같이古今에 널리 통하는 권위자가 아니면 완성시킬 수 없다. 비록 繆荃孫도 물론 판본목록학의 대가이기는 하나, 전반적인 학식면에서는 張之洞과 견줄 수는 없다.”<sup>8)</sup>고 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書目答問』은 결코 繆荃孫 한 사람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으며, 그렇다고

4) 桂 五十郎 編. 『漢籍解題』. 東京: 明治書院, 大政18[1929]. p. 678

5) 梁子涵, “書目答問著者的推測”, 中國圖書館學會會報, 第8期. 民國46[1957] p. 26

6) 上揭書

7) 范希曾 編. 『書目答問補正』. 臺北, 新興書局, 民國60[1971] p. 4 (文襄之書故繆藝風師代撰 園氏之)

8) 梁子涵, 前揭書. p. 27 (總之書目答問選書與分類, 雖不能稱其全無瑕疵, 然在清季各家書目中, 確可稱爲最詳盡最清的一種. 此種偉大工程, 若非有博通古今的大師與張之洞者流, 是沒有方法完成的. 繆荃孫固然是版本目錄大家, 然其爲學的通識, 是與張之洞不可同日而語的)

張之洞만의撰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情況을 종합해볼 때, 비록 繆荃孫이 『書目答問』을 편찬하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張之洞이 『書目答問』의 主撰者인 것만은 확실하며, 더욱이 『書目答問』의 略例에 明記되어 있는 ‘張之洞記’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한편 張之洞은 영국과의 阿片戰爭 등 서양열강의 중국침략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1837년(道光17) 貴州 출생으로 父親인 張鏞과 母親 朱氏사이에 長男으로 태어났으며,<sup>9)</sup> 일찍이 5세부터 學堂에 들어가 修學에 힘쓰다가 16세에 順天府鄉試를 비롯하여 여러 考試에 합격하여 1863년(同治2) 翰林院編修官으로 부터, 1909년(宣統元年) 修德宗實錄總裁官을 마지막으로 평생을 정치가, 교육가로서 종사한 인물이다.<sup>10)</sup>

더욱이 張之洞은 교육가로서 經心學堂, 尊經書院 등의 많은 學堂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sup>11)</sup> 企業家로서도 造船事業, 紡織事業, 鐵路事業 등 많은 企業을 일으켜,<sup>12)</sup> 이 두 방면에서 중국의 근대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점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천가로서의 面貌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中學爲體, 西學爲用(혹은 舊學爲體, 新學爲用)”<sup>13)</sup>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본래 당시의 政治思潮이자, 文化思潮에 모두 통용되었던 것으로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었고, 중국의 정신적 가치와 서양의 물질적 가치 혹은 技術을 體用的 논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體用的 논리구조를 청말의 교육개혁에 처음 적용한 사람이 바로 張之洞이다.<sup>14)</sup> 따라서 그가 제시한 이른바 ‘中體西用論’을 비록 처음 만들어 낸 이론이나 학설은 아니나 이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하여 청말의 교육

9) 馬東玉 著. 『張之洞大傳』.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1989. p. 5

10) 馬東玉 著. 『張之洞大傳』.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1989. (張之洞生平大事年表). pp. 413-422.

11) 上揭書. pp. 261-280.

12) 上揭書. p. 166

13) 上揭書. p. 303

14) 沈炯哲, 『張之洞의 教育改革論研究』. 淸州: 韓國敎員大學校 大學院, 1996. p. 14

개혁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이로 인해 그는 중국의 전통문화와 사상의 바탕위에 서양의 과학기술, 정치제도, 교육제도 등의 先進文物을 수용하자는 이른바 온건적인 개혁주의자로 평가되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그대로 교육제도에 적용되어 교육방법, 학습연한, 고시제도, 학습목적 등에 일대 혁신을 갖게 되며, 특히 606년 부터1905년 까지 무려 1,300여년간 실시해온 중국의 전통적인 과거제도를 폐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sup>15)</sup>

## 2. 編纂動機

清 光緒元年 張之洞은 四川의 學政으로 在職時 학생들을 위해 『輶軒語』와 『書目答問』을 1875년(光緒2)에 간행한 바 있다. 『輶軒語』는 학생의 立身行世之道(語行), 治學方法(語學), 科舉時文과 程式(語文)에 관한 책이며, 『書目答問』은 학생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을 추천하고, 그 중 어떤 版本이 善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책이다. 따라서 이 兩書는 모두 당시 科舉制度和 관련한 상호 對照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張之洞은 四川 學政 전에도 일찍이 浙江鄉試副考官과 湖北 學政 등<sup>16)</sup> 여러 해 동안의 교육경력을 통해 科舉制度에 대한 여러 가지 弊端를 경험하였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輶軒語』에 여러 차례 기술한 바가 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것은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帖括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張之洞의 생각은 四川 學政의 任期末인 1875년(光緒2)에 편찬한『四川省城尊經書院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전체 학생은 三萬人이나, 學堂의 定員은 百人뿐이니, 百人을 振作하기 위해 三萬人을 그대로 둘 수는 없

15) 馬東玉 著. 『張之洞大傳』,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1989. p. 306 (在此形勢下, 張之洞… 清政府同意了他們的上奏, 頒發上諭, 規定自1906年的丙午科一律將科舉停止)

16) 馬東玉 著. 上揭書 p. 267

다. 그러므로 독서를 통해 人材를 養成해야 한다. 따라서 마땅히 읽어야 할 책을 選定하는 데는 그 선택방법이 있어야 하나 그 方法이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니, 經史, 小學, 輿地, 推步, 算術, 經濟, 古文, 詩, 古文辭가 모두 학문이다”<sup>17)</sup> 라고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적어도 經史籍을 고 하고, 古文的 詞章은 물론 일체의 經世之書를 여러 번 읽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張之洞의 사상에서 어느 정도 시대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學風의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던 史實을 엿볼 수 있다.

이와같이 張之洞은 四川 學政으로 재직중 당시 學生들이 八股文과 帖試을 위한 詩 이외에는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는 과거제도의 폐단을 알고, 學生들로 하여금 반드시 經史를 고중하고, 古文的 詞章을 辨別함은 물론 經世를 위한 모든 서적을 읽도록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며, 그 중 어떤 판본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하자 이에 대한 답으로 『書目答問』을 편찬하게 되었다.<sup>18)</sup>

따라서 이와 같은 편찬배경을 지닌 『書目答問』은 과거제도의 폐지로 그 가치를 잃어 버린 『翰軒語』와는 달리 讀書家 書目으로서의 특성을 그대로 지닌채 여전히 후대의 學者들에게도 讀書의 指針書로 남게 되었다.

### Ⅲ. 『書目答問』의 分類體系

『書目答問』의 기본적인 분류체계는 그의 略例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條類를 辨別하되 그 선택을 신중히 하여 취하기를 간략히 하며, 그 성질에 가까운 것을 보고 각각의 部에 대하여 이를 나누고, 또한 그 중에서도 子目

17) 張之洞 撰. 『四川省城尊經書院記』. (全屬學生, 三萬人, 院額百人, 振百人, 遺三萬人, 何益, 然則何爲, 曰讀書, 讀書何用, 曰成人材, 宜讀何書, 曰在擇術, 宜擇何術, 曰無定, 經史, 小學, 輿地, 推步, 術數, 經濟, 詩, 古文辭, 皆學也)

18) 張之洞 撰. 『書目答問』.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民國63[1974]. 略例. (諸生好學者, 來問應讀何書, 書以何本爲善, 偏舉既嫌 漏, 志趣學業, 亦各不同, 因錄此, 以告初學)

을 상세히 나누어 類로 구분함에 편하게 하며, 한 類중에서도 다시 義例를 비교한 다음, 다시 시대로써 구분하여 그 門徑의 질서를 바로 잡는다”<sup>19)</sup>고 한 바와 같이, 學問의 성질을 分類의 주제로 함은 물론 아울러 체제와 출판년도까지 그 기준으로 삼고 있어, 오늘날의 과학적인 분류체제와 비교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는 類聚概念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書目答問』은 지금까지의 前人들의 書目體系와는 달리 당시 初學者들이 응당 읽어야 할 책을 지시해주는 기능과 특성을 갖고 있으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서양문물의 東漸으로 서양의 서적들이 많이 번역되어 점점 서적의 종류는 물론 그에 대한 子目이 번잡해져서 기존의 四部分類體系로는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門類에 대한 다소의 增減修正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 1. 「四部法」의 修正

張之洞 이전에도 四部法에 대한 수정의 움직임은 여러 번 있어 왔다. 즉 『隋書經籍志』의 四部 四十類가 분류체제의 표준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학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새로워져, 그에 따라 著述도 번잡해져 기존의 四部體系로는 모든 서적을 포괄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되자, 王堯臣의 『崇文總目』과 陳振孫의 『書錄解題』에서는 비록 여전히 四부로 분류하고 있으나 經史子集의 ‘四部’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李淑의 『邯鄲圖書志』, 鄭寅의 『鄭氏書目』, 鄭樵의 『通志藝文略』에서는 모두 子部 내에 속한 것이기는 하나, 四部 이외에 별도의 部를 두고 있으며, 孫星衍의 『祠堂書目』에서는 四부의 틀을 깨고 學術의 성질에 따라 類目を 세분하거나 통합하는 등의 四部에 대한 전체적인 改正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改革도 四部法

19) 張之洞 撰. 『書目答問』.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民國63[1974]. 略例. (爲分別條類, 慎擇約舉, 視其性之所近, 各就其部求之, 又於其中, 詳分子目, 以便類求, 一類之中, 復以義例相近者, 使相比附再敘時代, 令其門徑秩然)



자체를 도대시키지 못하고, 다만 치우친 것을 보충하고 類目を 증감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한편 張之洞의 『書目答問』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前人들의 書目體系와는 달리 初學者에 대한 讀書指導를 위해 지금까지의 藏書家의 目錄을 탈피하여 讀書家의 書目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든지,<sup>20)</sup> 더욱이 西洋의 과학기술과 관련한 西洋譯書의 增加로 인해 서적의 종류와 類目の 變잡해짐에 따라 기존의 四部分類體系로는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없게 되어 그 門類에 대한 다소의 增減改正이 불가피하게 되자 四部法에 修正을 加하게 되었다. 이러한 狀況을 각 部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經 部

『書目答問』 중에서 우선 經部의 분류체계를 당시 가장 대표적인 四部法이었던 『四庫提要』의 분류체계(이하 四庫法)와 대비·분석하여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四庫法과 『書目答問』의 비교: 經部

四庫法	書目答問	備 考					
		新設	廢止	細分	統合	倒置	移置
易類	正經正注	-					
書類	正經正注合刻本	-					
詩類	正經正注分刻本	-					
禮類	正經正注讀本附	-					
周禮	列朝經注經說經本考證	-					
儀禮	易						
禮記	書						
三禮通義	詩						
通禮	周禮禮						

20) 張之洞 撰, 『書目答問』,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民國63[1974]. 略例. (非若藏書家編次目錄, 故不盡用前人書目體例)

四庫法	書目答問	備考					
		新設	廢止	細分	統合	倒置	移置
雜禮	儀禮						
春秋類	禮記						
孝經類	三禮總義						
五經總義類	樂					-	
四書類	春秋左傳			-			
樂類	春秋公羊傳			-			
小學類	春秋穀梁傳					-	
訓	春秋總義	-				-	
字書	論語	-					
韻書	孟子						
	四書						
	孝經	-				-	
	爾雅	-					
	諸經總義	-				-	
	諸經目錄·文字音義						
	石經						
	小學						
	說文	-				-	
	文彙隸眞書各體書						
	音韻					-	
	訓詁					-	

위의 <표 1>에서와 같이 『書目答問』經部가 四庫法에 비해 크게 두드러진 점은 經部 전체를 크게 「正經正注」, 「列朝經注經說經本考證」, 「小學」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正經正注」내에 ‘合刻本’, ‘分刻本’, ‘讀本’으로 세분하고, 이중 ‘合刻本’에는 四書, 五經, 十三經 등 諸經의 定本 및 注疏의 合刻書 또는 合刊書를 두고 있고, ‘分刻本’에는 正經正注의 개별저작을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誦讀을 위한 것만을 따로 ‘讀本’에 두고 있다. 또한 「列朝經注經說經本考

證」에는 諸經에 대한 전문연구서만을 별도로 수록하고 있다.

이중에서 우선 「列朝經注經說經本考證」 중의 易, 書, 詩, 禮까지의 순서만을 비교해보면, 다만 ‘通禮’와 ‘雜禮’를 모두 ‘三禮總義’에 모아 두고 있을 뿐 四庫法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樂類’의 경우는 四庫法에서는 四書類뒤에 놓고 있는 것에 비해 「書目答問」에서는 전통적인 六經體例의 순서에 따라 그대로 ‘禮類’ 뒤에 두고 있다.

春秋의 경우는 그 順序가 四庫法에 비해 차이가 없으나 다만 ‘春秋左傳’, ‘春秋公羊傳’, ‘春秋穀梁傳’, ‘春秋總義’로 세분하여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書目答問』의 經部에서는 四庫法과는 달리 四書이외에 별도로 ‘論語’, ‘孟子’를 따로 두고 있는 것이 주시된다. 본래 역대서목중에는 論語만이 一類를 이루고 있었으며, 孟子는 『國史經籍志』에서야 따로 一類를 이루다가, 南宋의 孝宗年間에 와서 朱熹가 『小載記』중에서 大學, 中庸을 취하고, 기존의 論語, 孟子를 합하여 四書를 이루었고, 급기야는 『明史藝文志』에서야 四書類를 등장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張之洞은 이에 대해 당해 注에서 “단약에 이들을 四書에 통합시키면 十三經의 수를 좇을 수 없으므로 注解家의 分合에 따라 이를 따로 두고 있다.”<sup>21)</sup> 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四書 이외에 별도로 論語, 孟子를 따로 두고 있는 이유는 바로 諸經을 의미하는 ‘十三經’의 순서에 따른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이와 같은 배열의 순서는 ‘孝經’, ‘爾雅’에서도 볼 수 있다. 우선 ‘孝經’은 四庫法에서는 春秋 다음에 둔 것에 비해 「書目答問」에서는 ‘四書’뒤에 두고 있다. 이 역시 十三經의 순서이며, 爾雅는 본래 四庫法에 있지 않았으나, 그것은 經典中心으로 편찬되었으므로 十三經에 편입되었고, 이 位置 역시 十三經의 순서에 따른 것이다.

21) 張之洞 撰. 『書目答問』.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民國63[1974]. 經部. (論語. 若統於四書, 則無從足十三經之數, 故視注解家之分合別列之)

한편 『書目答問』에서는 우선 四庫法의 五經總義를 ‘諸經總義’로 그 명칭을 바꾸고, 아울러 ‘諸經目錄’, ‘文字音義’, ‘石經’ 등의 總經類를 확대하여 바로 뒤에 두고 있다. 이 역시 당시의 諸經을 十三經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諸經에 대한 要義에 詮釋을 가한 모든 經典의 종합적 연구서인 ‘諸經總義’는 물론 ‘諸經目錄’, ‘文字音義’, ‘石經’<sup>22)</sup> 등을 十三經의 마지막 ‘爾雅’ 뒤에 둔 것이다.

「小學類」에는 『漢書藝文志』와 四庫法에 따라<sup>23)</sup> 그대로 訓詁(字義), 字書(字形), 韻書(字音)에 대한 것을 실고 있으나, 다만 그 명칭만 字書를 ‘說文’으로, 韻書를 ‘音韻’으로 바꾸고 있으며, 보통 字書에 포함되어 왔던 字體에 관한 것을 따로 ‘古文篆隸眞書各體書’를 두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 (2) 史 部

史部の 경우, 『書目答問』史部の 분류체계를 四庫法과 대비·분석하여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2>와 같다.

正史는 ‘紀表志傳’의 체제와 순서로 편찬한 史書로, 사람을 綱으로 삼고 君臣行事的 終始를 나누어 기록한 것이며, 이는 『史記』, 『漢書藝文志』등 紀傳體裁로 기술된 正統史學이므로 史部중 제일 처음에 두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다만 <표 2>에서와 같이 『書目答問』에서는 四庫法과는 달리 「正史類」를 ‘正史合刻本’, ‘正史分刻本’, ‘正史注補表譜考證’으로 각각 세분하여, ‘正史合刻本’, ‘正史

22) 石經類 역시 본래 經文을 考訂한 것이므로 總經類에 분류하되, 다만 石經中에서 隸釋, 隸續, 漢隸字源은 經部의 小學으로, 石經의 本末을 敘述한 書籍은 史部에 編入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上揭書. 經部. (此乃經文本原, 故別爲類, 考石經者, 已入經部)

上揭書. 史部. (考石經者, 已入經部. 石經類, 隸釋, 隸續, 漢隸字源, 已入經部小學類)

23) 上揭書. 經部. (此小學, 爲六書之學, 依漢書藝文志, 及四庫目錄)

〈표 2〉 四庫法과 『書目答問』의 비교 : 史部

四庫法	書目答問	備考					
		新設	廢止	細分	統合	倒置	移置
正史類	正史						
編年類	正史合刻本	-					
紀事本末類	正史分刻本	-					
別史類	正史注補表譜考證	-					
雜史類	編年						
詔令奏議類	司馬通鑑			-			
詔令	別本紀年			-			
奏議	綱目			-			
傳記類	紀事本末	-					
聖賢	古史						
名人	別史						
總錄	雜史						
雜錄	事實			-			
別錄	掌故			-			
史鈔類	夢記			-			
載記類	載記						
時令類	傳記						
地理類	詔令奏義						
宮殿疎	地理	-					
總志	古地志	-					
都會郡縣	今地志						
河渠	水道						
邊防	邊防						
山川	外紀						
古蹟	雜地志						
雜記	政書						
遊記	歷代通制	-					
外紀	古制	-					
職官類	今制						
官制	譜錄					-	-
官箴	書目					-	-
政書類	姓名·年譜						
通制	名物					-	-
典禮	金石						
邦計	金石目錄			-			
軍政	金石圖象			-			
法令	金石文字			-			
考工	金石義例			-			
目錄類	史評						
經籍	論史法			-			
金石	論史事			-			
史評類							

分刻本'에는 學者가 읽어야 할 기본적인 史書로서의 正史 그 자체를 수록해 두고, '正史注補表譜考證'에는 그 正史를 읽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따로 구분하여 수록한 것은 이전의 書目에서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분류방법이다.

「編年類」와 「紀事本末類」의 경우는 四庫法의 체재를 그대로 답습한 듯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書目答問』의 「編年類」를 「司馬通鑑」<sup>24)</sup> 「別本紀年」, 「綱目」으로 각각 세분한 것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書目答問』의 「古史類」는 四庫法에 없는 것으로 이는 史記 이전에는 특정한 史例가 없어 經部, 子部, 史部에 서로 出入이 있었고, 때로는 또한 史部에 흩어져 편입되었으므로,<sup>25)</sup> 『周書』, 『國語』, 『國策』, 『山海經』 등의 古史類를 한 곳에 모아 두고 있다.

한편 「別史類」, 「雜史類」, 「載記類」, 「詔令奏議類」를 각각 살펴보면, 그 순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四庫法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書目答問』에서는 「雜史類」를 「事實」, 「掌故」, 「瑣記」로 세분하고 있고, 반대로 四庫法에서 「詔令」, 과 「奏議」로 세분되었던 것을 「詔令奏議類」로 통합하여 두고 있다.

「傳記類」는 한 시대의 인물에 대한 言行 혹은 一人의 言行을 기록한 것으로 「四庫總目」의 「傳記類」에서는 이를 「聖賢」, 「名人」, 「總錄」, 「雜錄」, 「別錄」으로 구분하였으나, 이에 비해 『書目答問』에서는 이를 모두 통합하여 비록 분류체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으나, 실제로는 두가지로 구분하여 四庫法의 「聖賢」, 「名人」과 같이 단지 一人의 言事만을 기록한 것은 「譜錄類」의 「姓名·年譜」目に 두고, 「總錄」, 「雜錄」, 「別錄」과 같은 종합적인 傳記書는 그대로 「傳記類」에 통합시키고 있음이 특이하다.

「地理類」는 郡國의 山川 등 공간에 대한 기술로 四庫法에서 一國의 地理를 통털어 기술한 總志를 여기서는 「古地志」와 「今地志」로 구분하고 있으며,

24) 張之洞 撰. 『書目答問』.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民國63[1974]. 史部. (編年. 司馬通鑑. 其書博大, 故別爲類)

25) 上揭書. 史部. (古史類. 古無史例, 故周秦傳記體例, 與經子史相出入, 散歸史部, 派別過繁, 今彙聚一所爲古史)

‘河渠’를 현대적인 개념인 ‘水道’로 바꾸고, 都會郡縣, 山川, 遊記, 雜記 등을 합하여 ‘雜地志’로 하는 등 차이를 두고 있다.

「政書類」는 朝廷의 儀式과 禮法의 吉凶을 기술한 것으로 주로 當朝 또는 前朝의 故事 혹은 歷朝의 典禮에 관하여 서술한 것이다. 四庫法의 職官類에 속해 있었던 『大唐六典』과 『歷代職官表』를 「政書類」 아래에 있는 ‘古制’와 ‘今制’에 각각 편입시키는 등<sup>26)</sup> 四庫法의 職官類에 있는 官制와 官箴을 「政書類」에 통합시키고 있으며, 四庫法의 通制를 「通典」, 「通志」, 「通考」 등 三通을 주축으로 하여 古今을 通貫한 것을 모아 ‘歷代通制’로 변경시키고 있는 것<sup>27)</sup>이 특징이다.

또한 반대로 四庫法에서 目錄類안에 經籍과 金石을 함께 두었던 것을 여기서는 「譜錄類」와 「金石類」로 나누어 두고 있다. 이와 같이 「金石類」를 독립시켜 따로 두고 그 아래에 ‘金石目錄’, ‘金石圖象’, ‘金石文字’, ‘金石義例’ 등으로 專錄한 것은 당시 金石學이 발달하여 전문적인 학문이 됨에 따라<sup>28)</sup> 관련 서적이 많이 발간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書目答問』이 학문의 발전에 따라 분류체계를 통합·전개시킨 것이다. 한편 「譜錄類」의 경우는 본래 四庫法의 子部에 있었던 것을 『隋·唐經籍志』의 예에 따라 史部로 옮겨와<sup>29)</sup> ‘書目’ ‘姓名·年譜’, ‘名物’으로 세분하여 두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러나 ‘書目’은 四庫法에서의 經籍類를 그대로 두고 있고, ‘姓名·年譜’는 史部의 傳記類에서 분리하여 옮겨놓고, ‘名物’은 子部の 본래 譜錄類에 있었던 器用, 食譜, 草木鳥獸蟲魚를 그대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門類의 分合은 아마도 金石類를 처음으로 독립시켰던 孫聖衍의 『祠堂書目』<sup>30)</sup> 과 譜錄類를 따로 두고 그 아래에 統譜, 旅譜, 年譜, 世家, 試錄, 姓名, 書目 등을 두고 있는 郇承

26) 張之洞 撰. 『書目答問』.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民國63[1974]. 史部. (政書類. 今制. 提要入職官, 今附此)

27) 上揭書. 史部. (政書類. 歷代通制. 三通爲體, 通貫古今, 故別爲類)

28) 上揭書. 史部. (金石類. 金石之學, 依鄭夾 例, 別出一門)

29) 上揭書. 史部. (譜錄類. 依隋唐經籍志, 入史部)

30) 孫聖衍 編. 『祠堂書目』. 金陵: 孫忠愍祠堂, 嘉慶15[1810]

燁의 『澹生堂藏書目』<sup>31)</sup>의 예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史評類」는 史體를 분석하거나 史事를 論評한 저작으로 여기서는 이를 ‘論史法’과 ‘論史事’로 세분하고 있다. 이 역시 史評類를 考訂, 論斷, 讀史 등 삼목으로 세분하고 있었던 祁承燁의 『澹生堂藏書目』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외에도 四庫法에 있었던 것을 『書目答問』에서는 폐지한 것이 있다. 그 중 史鈔類를 없앤 것은 따로 叢部の 別錄에 讀本類를 두었기 때문이나, 이는 원래 史鈔類가 史書의 拔 萃이므로 『書目答問』에서는 底本이 되는 本來의 史書에 함께 두어, 관련있는 주제를 같은 곳에 분류하여 동일한 주제로 접근시킨 것이다. 또한 時令類가 없는 것은 四庫法에서 時令類에 속해 있었던 『授時通考』등이 農家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時令類가 農家類에 편입된 것이다.

### (3) 子 部

子部の 경우에 있어서도, 앞에서와 같이 『書目答問』子部の 분류체계를 四庫法과 대비·분석하여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3>과 같다.

이상의 <표 3>에서와 같이 子部는 거의 四庫法과 다를 바가 없으나 다만 「周秦諸子」를 새로 만들고, 譜錄을 史部로 移置하였고, 釋과 道를 하나로 합치고, 「儒家」를 ‘講論經濟’, ‘理學’, ‘考訂’ 등으로 나누고, 또한 「天文算法類」를 새로 ‘中法’, ‘西法’, ‘兼用中西法’으로 나누고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四庫法에 비해 類目이 통합된 부분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우선 學術發展의 源流에 따라 子部에 「周秦諸子」一類를 따로 둔 것이 독특하다. 이는 西漢 이후 名家, 法家, 縱橫家 등의 諸子가 이미 전해지지 않고 또한 師法이 없어 周秦의 본래 면목을 상실하였는데도, 여전히 後世의 書를 취하여 억지로 九流에 붙여 놓는 폐단이 있어, 이를 後世의 漢諸家와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晉 葛洪 『中經新簿』의 ‘古諸子家’와 ‘近世子家’의 구분

31) 祁承燁. 『澹生堂藏書目』. 紹興先正遺書 第3集本



〈丑 3〉 四庫法과 『書目答問』의 비교 : 子部

四庫法	書目答問	備考					
		新設	廢止	細分	統合	倒置	移置
儒家類	周秦諸子	-					
兵家類	儒家						
法家類	議論經濟			-			
農家類	理學			-			
醫家類	考訂			-			
天文算法類	兵家						
推步	法家						
算書	農家						
術數類	醫家						
數學	天文算法						
占候	中法	-					
相宅相墓	西法	-					
占卜	兼用中西法	-					
命書相	術數				-		
書	藝術				-		
陰陽五行	雜家				-		
雜技術	小說家				-		
藝術類	釋道家				-		
書畫	類書					-	
琴譜							
篆刻							
雜技							-
譜錄類							-
器物							-
食譜							-
草木鳥							
獸蟲魚							
雜家類							
雜學							
雜考							
雜說							
雜品							
雜纂							
雜編							
類書類							
小說家類							
雜事							
異聞							
夢語							
釋家類							
道家類							

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며,<sup>32)</sup> 따라서 이를 古諸子, 혹은 古子라고 하고 있다.

「儒家類」는 孔孟의 學說을 말한 것으로 西漢 이후 儒家는 後世로 내려오며 따라 몇개의 파로 갈라졌는데, 「書目答問」에서는 이와 같은 실제의 학술발전에 따라 「議論經濟」, 「理學」, 「考訂」 三類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兵家類」, 「法家類」, 「農家類」, 「醫家類」는 四庫法의 순서를 그대로 답습하여 儒家뒤에 두고 있다. 「天文算法類」는 본래 術數略의 天文과 曆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四庫法에서 推步와 算書로 구분되나 다시 明清間에 西洋의 과학기술이 中國에 수입됨에 따라 張之洞은 「中體西用學」의 정신에 따라, 「天文算法類」에서는 우선 「古天算書」를 나열하고 다시 「中法」, 「西法」, 「兼用中西法」으로 나누고 있다. 이는 新書를 함께 분류하고자 함에서이다.

또한 「術數類」는 본래 天文算法類와 함께 數術略에 편입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四庫法의 數學, 占候, 相宅相墓, 占卜, 命書相書, 陰陽五行, 雜技術을 통합하여 陰陽五行의 生剋 造化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고, 「藝術類」역시 四庫法의 書畫, 琴譜, 篆刻, 雜技를 통합하고 있다.

그러나 「雜家類」의 경우는 의견상으로는 雜學, 雜考, 雜說, 雜品, 雜纂, 雜編 등이 통합된 것 같으나 그 수록된 서적중 『包朴子內外篇』, 『激子』 등 그 내용의 論旨가 하나의 一家에는 歸納되지 못하는 서적만을 모아 두고 있어, 四庫法과는 다른 개념의 雜家로 볼 수 있다.

또한 「雜家類」 바로 뒤에 小說家類를 인접시켰으나 이는 四庫法에서 雜事, 異聞, 夢語으로 세분되었던 것을 단지 統合시켜두었을 뿐, 큰 차가 없다.

「釋道家」는 四庫法의 釋家類와 道家類를 통합·축소한 것으로 이를 여전히 子部 끝에 둔 것은 衛道的인 觀念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아직 四庫法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

「類書類」는 四庫法에서 「雜家類」뒤에 둔 것과는 달리 子部の 맨끝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張之洞은 “舊例에 따라 비록 子部에 두고는 있으나, 본래

32) 鄭默, 荀勗, 『中經新簿』, 臺北: 開明書店, 民國61[1972], 影印本

類書가 子部가 아니다<sup>33)</sup>라고 하여 원래 子部에 속할 수 없으나, 어쩔수 없이 이곳에 놓을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 (4) 集 部

集部的 경우도 역시, 『書目答問』중에서 集部的 분류체계를 四庫法과 대비·분석하여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四庫法과 『書目答問』의 비교: 集部

四庫法	書目答問	備 考					
		新設	廢止	細分	統合	倒置	移置
楚辭類	楚辭						
別集類	別集						
總集類	漢魏六朝			-			
詩文評類	唐至五代			-			
詞曲類	北宋			-			
詞集	南宋			-			
詞選	金元			-			
史話	明			-			
詞譜詞韻	清理學家集			-			
南北曲	清考訂家集			-			
	清不立宗古文学家集			-			
	清棟城派古文学家集			-			
	清陽湖派古文学家集			-			
	清駢體家集			-			
	清詩家集			-			
	清詞家集			-			
	總集			-			
	文選			-			
	文			-			
	詩			-			
	詞			-			
	詩文評			-			

33) 張之洞 撰, 『書目答問』,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民國63[1974]. 子部. (類書類. 類書實非者, 從舊例附列於此, 舉其有原者)

이상의 <표 4>에서의 같이 集部の 경우는 四庫法이 「楚辭類」, 「別集類」, 「總集類」, 「詩文評類」, 「詞曲類」 등 五分한 것에 비해 『書目答問』에서는 「詞曲類」를 폐지하여 「總集」과 「別集」에 각각 분산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간략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四庫法의 「別集」을 더욱 세분하여 먼저 시대로 구분하고, 淸代의 것에 대해서는 文體에 따라 ‘淸理學家集’, ‘淸考訂家集’, ‘淸不立宗古文家集’, ‘淸棟城派古文家集’, ‘淸陽湖派古文家集’, ‘淸駢體家集’, ‘淸詩家集’, ‘淸詞家集’으로 구분했으니 이는 당시 淸代人의 流別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에 따라 門을 나누었기 때문이다.<sup>34)</sup> 또한 「總集」도 四庫法이 세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에 비해 ‘文選’, ‘文’, ‘詩’, ‘詞’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 2. 叢書와 別錄의 獨立

앞장에서와 같이 張之洞은 기존의 四部法에 대하여 많은 수정을 가하였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획기적인 관점은 四部이외에 叢書와 別錄을 각각 독립시켜 따로 두고 있는 것이며, 이는 분류학사상 가장 큰 공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총서의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이미 祁承燾의 ‘益’<sup>35)</sup>의 방법으로 그의 『澹生堂藏書目』子部에 叢類를 신설하였던 것을 『書目答問』에서는 이를 독립시켜 따로 한 部로 신설한 것일 뿐, 창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전통적으로 固守해오던 四部法을 보완하여 叢書를 새로이 독립시킨 것은 張之洞만의 독특한 전개방법으로서, 이는 새로운 분류체계로의 변화가 싹트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4) 張之洞 撰, 『書目答問』,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民國63[1974]. 集部。(國朝人集流別太多, 今爲分類列之, 各標所長, 以便初學尋, 求其詩文集分刻者分之)

35) 四部の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것을 처리하기 위해 고안한 분류방법임

〈표 5〉 四庫法과 『書目答問』의 비교 : 叢書와 別錄

四庫法	書目答問	備考					
		新設	廢止	細分	統合	倒置	移置
	叢書	-					
	古今人著述合刻叢書	-					
	國朝一人自著叢書	-					
	別錄	-					
	群書讀本	-					
	考訂初學各集	-					
	詞章初學各集	-					
	童蒙幼學各集	-					

그러나 위의 〈표 5〉에서와 같이 『書目答問』의 叢書部는 四庫法에 없었던 것을 새로 신설한 것이나 總記의 書籍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古今人著述合刻叢書’와 ‘國朝一人著述合刻叢書’로 구분하여, ‘古今人著述合刻叢書’에서는 문자 그대로 여러 사람의 저술을 습하고 있는 叢書를 수록하고, ‘國朝一人著述合刻叢書’에서는 清代 學者 한 개인의 저작만을 합각한 叢書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書目答問』 叢書部 뒤에는 ‘群書讀本’, ‘考訂初學各書’, ‘詞章初學各書’, ‘童蒙幼學各書’ 등 주로 초학자를 위한 讀本類, 考訂類, 詞章類와 어린 학생들의 入門書를 각각 수록하고 있는 별록류를 따로 독립시켜 두고 있으며, 이 역시 四庫法은 물론 이전의 어느 서목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항목이다.

#### IV. 分類上의 特性 및 諸問題

이상에서와 같이 『書目答問』과 四庫法의 분류체계를 비교해본 결과 그 분류체계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책을 마땅히 읽어야 하며, 어떤 版本이 善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讀書家書目으로서 뿐만 아니라, 역대서목을 통해 최초로 叢書와 別錄을 獨立시켜 五分法의 기초를 세우는 등 학술발전의 源流에 따라

類目的 수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四分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도 散見되고 있다. 이를 經史子集叢의 순서로 그 특징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經 部

四部法의 經部는 七略이래로 六禮의 六經 이외에 論語, 孝經, 小學 三類를 두고, 후에 孟子, 讖緯, 經解, 訓詁 등이 붙어 다만 그 배열순서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四庫法에 이르기 까지 큰 변동이 없이 대략 十餘類를 이루어 왔다.

그 후 張之洞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그의 著 『瞿目答問』에서 「正經正注」, 「列朝經注經說經本考證」, 「小學」으로 크게 삼분하고 있는데, 먼저, 「正經正注」에서는 古來의 經注疏 및 集注 중에서 定本만을 따로 모아, 四書, 五經, 十三經 등 주로 他類로 가를 수 없는 諸經을 一類로 세워 「合刻本」에 두고, 一經에 대한 개별 善本은 「分刻本」에 두고 있다. 그 중 특히 誦讀을 위한 白文本이나 간명한 音注本은 「讀本」에 각각 구분하여 두고 있는 바, 이는 바로 學者들이 중국의 전통적인 學問源流로서 經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기 위한 방편이다. 또한 經注疏 및 集注외에도 諸經에 대한 注釋 및 해설을 가한 「列朝經注經說經本考證」에서는 앞의 「正經正注」을 읽는데 참고가 되는 後儒들의 經籍研究에 관한 저작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따로 收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論이 제기되고 있다. 開明의 경우는 「經學은 그 由來가 오래되고, 또한 이미 그 나뉠대로의 전문저작을 이루어 왔으므로, 오늘날 經學을 폐기하자고 提唱하는 것은 진실로 그 이론적인 것을 막론하고도 이미 보편적인 공인을 얻을 수 없다」<sup>36)</sup>고 주장하였고, 桂質柏도 이러한 주장

36) 裴開明. “哈佛大學中文圖書分類法攷例”, 「文化圖書館學季刊」, v. 1, no. 3 p. 58 (經學定名, 由來久矣, 且已成專門著作, 載籍浩如煙海. 今之倡言廢經者, 姑無論已, 在學理上, 已否得普遍之公認.)

에 호응하여 經部는 萬象을 망라하고, 같은 脈絡과 相關을 이루고 있어 他類로 나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經部의 各項 모두를 흐트러 뜨리지 않고 中國哲學의 儒家類에 그대로 列入하고 있다.<sup>37)</sup> 이외에도 沈祖榮, 胡慶生은 經書를 모두 經部「類書」類에 모아 두고 있으며,<sup>38)</sup> 查修氏도 四庫의 經部中 樂類와 小學만을 제외하고 모두 總類에 두고 있다.<sup>39)</sup>

또한 理論은 劉國鈞와 杜定友의 경우이다. 開明의 理論과는 달리 “本來 經部는 六禮로 이는 옛사람들의 學問으로, 後人이 이를 六經으로 삼아, 治學의 方法上 六禮를 늘 앞에 두었으며, 이것이 변하여 尊儒의 經部로 신봉하게 되었으나 실제로 이는 後人의 잘못이다”<sup>40)</sup>라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杜定友는 “도서관분류학상 經書는 哲學을 비롯한 다른 여러 科學에 비해 上下優劣이 있을 수 없으며, 더욱이 近代學術의 연구는 나날이 전문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專門的인 研究上 ‘古史’ 혹은 ‘文學史’ 등은 있으나, 도리어 전문적으로 經學 자체만을 연구하는 사람은 없으니, 經學은 다만 하나의 막연한 名詞에 지나지 않으며, 今古文의 구분은 이미 과거가 되어 버렸고, 학술상으로도 이미 그 중요성을 상실했다”<sup>41)</sup>고 하면서 전문 연구상 결국 九經과 十一經등 가를 수 없는 群經은 一類를 세우고, 나머지는 내용에 따라 各類에 접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후세 學者들의 견해에 불과하지만, 『書目答問』에서 앞에서 언

37) 桂質柏 編. 『杜威書目十類法』. 濟南: 齊魯大學圖書館出版社, 民國14[1925]

38) 沈祖榮, 胡慶生 編. 『仿杜威書目十類法』. 武昌: 文華公書林出版公司, 民國16[1927]

39) 查修 編. 『杜威書目十進法補編』. 北平: 清華大學圖書館, 民國13[1924]

40) 劉國鈞 編. 『中國圖書分類法』. 臺北: 金陵大學圖書館, 民國19[1930] (導言. 經部原爲六藝, 爲古人所治之科學, 後人以六藝爲六經, 於是治學方法上首列之六藝, 變而爲尊儒之經部, 實後人之失也)

41) 杜定友 編. 『三民主義中心圖書分類法』. 廣州: 國立中山大學圖書館, 民國37[1948] p. 16 (經部. 在圖書分類學上, 經書與哲學和其他科學, 無軒. 因爲近代學術研究, 日趨專門, 有專門研究上, 上古史或文學史等, 却沒有專門研究經學的人. 經學不過是一個籠統的名詞. 今古文之爭, 亦已成過去, 在學術上, 已失其重要性. 只要 經如九經, 十一經等, 不能省開的, 自立一類外, 其他分入各類, 於研究上, 實較便利)

급한 裘杜 兩者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古來의 經注疏에 관한 定本과 후대 學者들의 研究書를 구분하여 두고 있는 것은 初學者에게 「正經正注」와 「經注經說經本考證」을 구분하여 읽기 위한 독서안내이며, 특히 실질적인 經部の 叢書인 「正經正注」의 合刻本은 책을 찾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각각의 經書를 찾는 노력을 덜어주는 매우 독특한 체제라 생각되며, 이것은 후대의 書目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經籍에 대한 注疏 및 集注는 「正經正注」에 두고, 이에 대한 전문연구서는 「列朝經注經說經本考證」에 각각 구분하여 두고 있는 것은 비록 初學者에게 「正經正注」와 「經注經說經本考證」을 구분하여 읽기 위한 독서방법이라 하나, 「正經正注」와 서로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諸經總義類’, ‘諸經目錄’, ‘文字音義’, ‘石經’ 등의 總經類를 어쩔 수 없이 「列朝經注經說經本考證」내에 따로 배열하고 있는 점<sup>42)</sup>은 다만 실용상으로 볼 때 四庫法에 비해 불편함이 없지 않으며, 포괄적인 개념을 상위항목에 두는 오늘날의 분류원칙에도 벗어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列朝經注經說經本考證」내에 속해있는 諸經들을 나열해보면, 易, 書, 詩, 周禮, 禮記, 三禮總義, 樂, 春秋左傳, 春秋公羊傳, 春秋穀梁傳, 春秋總義, 論語, 孟子, 四書, 孝經, 爾雅 등의 순으로, 이중 樂과 四書만을 제외하면 그 순서가 十三經과 一致된다. 따라서 「列朝經注經說經本考證」내에 있는 諸經의 順序는 十三經의 순서이며, 四庫法의 五經總義類를 細分하여 諸經總義, 諸經目錄·文字音義, 石經 등의 總解類를 十三經의 마지막 經書인 爾雅 뒤에 둔 이유도 바로 이에 연유된다. 이와같이 諸經의 개념을 四庫法의 五經에서 十三經으로 확대한 점도 역시 『書目答問』의 분류체계가 학술발전의 源流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2) 이에 대해 張之洞 자신도 『御纂七經』을 마땅히 존중하여 「正經正注」에 넣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원칙에 따라 어쩔 수 없이 「諸經總義類」에 두고 있다.

張之洞 撰, 『書目答問』,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民國63[1974]. 經部. (諸經總義類, 御纂七經. 此當敬尊, 與正注同)



그러나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四書이외에 論語와 孟子를 따로 두고 있는 점은 분류체제상 모순을 갖고 있으며, 더욱이 四書を 論語와 孟子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그 순서를 論語와 孟子보다 위에 두었어야 옳을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周禮’, ‘儀禮’, ‘禮記’ 등 三禮를 포괄하고 있는 ‘三禮總義’와 ‘春秋左傳’, ‘春秋公羊傳’, ‘春秋穀梁傳’을 포괄하고 있는 ‘春秋總義’를 이들 보다 뒤에 놓은 점도 역시 불합리하다.

또한, 孝經類의 경우도 十三經의 순서에 따라 억지로 四書뒤에 두고 있으나 이점 역시 經과 傳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그러나 본래 孝經이란 孔子가 曾子를 위해 孝道를 진술한 것으로 鄭玄의 孝經注序에서는 “孝經은 三才의 經緯요, 五行의 綱紀이니, 孝는 百行에서 가장 앞선 것이며, 經은 바꿀수 없음을 칭함이다”라고 하여 儒家에서 이를 모든 道德의 기점으로 삼고 있는 반면에, 呂維祺의 孝經或問에서는 “孝經에서 孝를 論함은 立身를 하고 도덕을 행하고, 治化를 가르친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니, 비단 曾子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天下 후세의 君主들을 위한 말도 여기에 속한다”<sup>43)</sup>고 한 바 처럼 孝經에 대한 正經과 注疏를 제외한 개인의 孝行에 관한 기록은 史部의 傳記類에 분류해야 한다.

爾雅의 경우도 十三經의 순서에 따라 孝經뒤에 두고 있다. 이는 본래 전통적인 經典이 아니었으나, 爾雅가 경전중심으로 편찬되어 十三經의 맨 끝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諸經에 있는 爾雅는 講論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이미 「小學類」의 「訓詁」에 있는 爾雅類와 혼동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樂類의 경우는 비록 十三經에서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六經의 순서에 따라 그대로 禮類의 뒤에 두고는 있다. 이와 같이 「樂類」가 十三經은 물론 五經, 十二經에도 모두 빠져 있는 이유에 대해 樂이 본래 六經의 하나 였으나 秦始皇이 焚書時에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하며, 또한 樂이 본래부터 經이 아니며, 다만 詩經속에 포함된 단순한 樂譜일 뿐이라 하였

43) 劉簡著. 『中文古籍整理分類研究』, 臺北: 文史哲出版社, 民國70[1981] p. 84

다<sup>44)</sup>. 따라서 古代의 본래 樂經을 제외한 古樂의 이론 및 古樂構造의 원리나 樂器를 사용하는 기술에 관한 저작은 子部의 藝術類에 편입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 2. 史 部

兩漢 이전에는 歷史를 經書에 통합시켜 『太史公書』를 春秋에 附入시켰다. 이후에 紀傳體가 나날이 많아져서 이미 春秋類에서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中經新簿』에서야 비로소 史部類를 따로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립된 四部法의 史部를 오늘날의 분류법의 관점에서 이를 論한다 하더라도 자못 그 성질에 따른 분류와도 부합할 수 있어, 史部를 四部の 다른 各部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으나 다만 아직 주도면밀하지 않는 곳이 散見되어 논란이 되는 바가 없지 않다.

한편 張之洞의 『書目答問』에서는 經部에서와 같이 史部의 首位에 우선 「正史類」를 ‘正史合刻本’, ‘正史分刻本’, ‘正史注補表譜考證’으로 각각 세분하여, 당시에 正史인 二十四史를 ‘正史合刻本’에 모아 두고, 史記, 五代史, 明史 등 그 중에서 分刻된 正史를 ‘正史分刻本’에 두고 있는바, 이러한 正史의 구분은 이전의 어느 書目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이는 포괄적인 개념을 상위항목에 두는 오늘날의 분류원칙으로 여기서 張之洞의 진보된 類聚意識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또한 ‘正史合刻本’, ‘正史分刻本’ 바로 뒤에, 正史를 읽는데 참고가 되는 注, 補, 表, 譜, 考證에 대한 것을 따로 모아 ‘正史注補表譜考證’에 두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본래 正史는 주로 官이 주도한 官纂史書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지금까지 正史를 訓釋하고 輯義한 것, 正史의 漏落을 合綴한 것, 正史의 異同을 辨正한 것, 正史의 字句를 교정한 것 등도 正史에 포함되어 분류되어

44) 劉簡著, 『中文古籍整理分類研究』, 臺北: 文史哲出版社, 民國70[1981] p. 83

져 왔었으나<sup>45)</sup> 張之洞은 이들을 학자들이 史書를 읽는데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따로 一目으로 세분한 것이다. 이에 대해 奎修는 “中國史를 分類함에 있어 맨앞에 ‘考證’을 둔 것은 考證이 본래 歷史의 本體는 아니나 歷史의 嚮道를 밝혀 이에 도움을 주고 학문을 연구하는데 잘못하여 다른 길로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sup>46)</sup>라고 하여 이를 正史와 구분하여 따로 두고 있는데 이 역시 張之洞의 論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正史類」가 앞에 오고, 그 뒤에 「編年類」, 「紀事本末類」, 「別史類」, 「雜史類」등의 순서로 되어 있는 바 이는 四庫法의 순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四庫提要』에서 “正史는 그 大綱을 이루고 編年에서 載記는 紀傳을 참고하기 위한 것이며, 時令에서 목록은 諸志를 참고하기 위한 것이며, 史評은 論贊을 위한 것”<sup>47)</sup> “이라 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논리적인 面이 있는 것 같으나, 이는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서적이 다른 門類에 놓이게 되는 모순을 갖고 있다. 또한 『書目答問』 역시 지나치게 체계를 중시하고, 正統과 僭偽의 구분이 있는 四庫法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같은 시대의 史書가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시대를 그 순서로 삼는 오늘날 歷史에 대한 분류원칙에 견주어 보면 불합리한 분류체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諸史에 대한 總類의 성격에 해당되는 「譜錄類」, 「金石類」, 「史評類」를 맨

45) 紀昀等 奉勅撰. 『四庫全書總目提要』.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影印本, 1971. 史部(正史類. 其他訓釋音義者, 如史記索隱之類, 拾遺闕者, 如補後漢年表之類, 辨正異同者, 如新唐書糾繆之類, 校正字句者, 如兩漢刊談補遺之類, 若別爲編次, 尋檢爲繁, 即各附本書, 用資參證, 至宋遼金元四史譯語, 舊皆舛謬, 今悉改正, 以存其真)

46) 奎修編. 『杜威書目十進法補編』. 北平: 清華大學圖書館, 民國13[1924]. (凡例. 中國史之分, 首考證者, 以考證非史本體, 其範圍所括, 論討爲多. 準杜法例, 置之首端, 亦以明其爲史之嚮道, 藉其助, 研究學問, 庶不致誤入 途也)

47) 紀昀等 奉勅撰. 『四庫全書總目提要』.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影印本, 1971. 史部. (今總括 書, 分十五類, 首曰正史, 大綱也, 次曰編年, 曰紀事本末, 曰別史, 曰雜史, 曰詔令奏議, 曰傳記, 曰史, 曰載記, 皆參考紀傳者也, 曰時令, 曰地理, 曰職官, 曰政書, 曰目錄, 皆參考諸志者也, 曰史評, 參考論贊也)

뒤에 위치 시키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譜錄類」 중의 「書目」에 諸史目録 이외에 어떤 다른 部에도 속할 수 없는 目録學, 綜合書目이 있는 것이나, 「姓名·年譜」 中에 역시 經史子集에서 모두 취할 수 없는 綜合人名錄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들은 아마도 張之洞이 따로 세운 叢部속에 편입되었어야 할 것이다.

한편 「書目答問」에는 史記 이전의 「逸周書」, 「路史」, 「汲冢書」, 「竹書紀年」 등과 같이 經과 史의 경계에 있던 것을 일괄 하여 「古史」를 따로 두고 있는데, 이는 地理中의 總志에 해당하는 것을 「古地志」와 「今地志」와 나눈 것, 또한 「政書類」의 「歷代通制」를 「古制」와 「今制」로 나눈 것 등과 더불어 아마도 古今의 學術을 구분하여, 그 源流를 辨明하려는 저자의 의도이며, 이를 통해서 당시 西洋의 과학기술서적을 함께 수록하는 데 힘썼던 張之洞의 「今勝於古」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의 구분은 내용을 증시하는 오늘날의 분류방법의 측면에서 보면, 助記表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내용상의 聚合에 문제가 되고 있다.

### 3. 子 部

예로부터 道德과 學問을 겸비한 자를 모두 尊稱하여 「子」라 하였고, 著書를 내어 說을 세우고 스스로 一家를 이룬 것을 子書라 했으며,<sup>48)</sup> 처음에는 서로 混淆되었으나 「七略」으로 부터 이를 구별하기 시작하여 六經이외의 說을 세운 것을 모두 子書라 하였으니,<sup>49)</sup> 따라서 子書란 說을 세워 人生의 道를 밝히되, 반드시 經과 구별되는 哲學書를 의미한다. 그러나 七略이 변하여 四部가 된후로 劉向의 七略類例는 다만 세 가지만 남았는데 이는 兵書, 術

48) 劉簡著. 「中文古籍整理分類研究」, 臺北: 文史哲出版社, 民國70[1981]. p. 102 (往古對有道德學問者, 皆尊稱之爲子, 凡著書立說, 自成一家之言, 則爲子書)

49) 紀昀等 奉勅撰. 「四庫全書總目提要」,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影印本, 1971. 卷91, 子部總敘. p. 769

數, 方技 등 三略으로 이 모두 해당 서적이 너무 적어 諸子에 함께 두고 있으며, 후에 經史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을 또한 억지로 子部에 붙여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子部를 근대 분류법의 원칙에 따라 살펴보면 마땅히 總類, 哲學, 宗教, 文學, 藝術, 社會科學, 自然科學 등 諸類로 나눌 수 있을 만큼 그 類目이 매우 복잡하다. 특히 순수한 철학 이론서인 墨家, 名家, 縱橫家 등은 해당 서적이 너무 적어서 한 類로 이를 수 없다는 이유로 雜家에 함께 두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家法을 어지럽히고 학술의 계통과 원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후세의 학자로 하여금 墨家, 名家, 縱橫家가 있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도 아울러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張之洞은 그의 著 『書目答問』子部 중에서 “周秦諸子は 대개 하나의 學術을 이루기는 했으나 후세의 群書가 經史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억지로 子部에 붙였으므로, 이름은 같으나 실제로는 그와 거리가 있는 것이다. 만약 이들을 각부의 首位에 각각 분류하면, 점점 변하고 갈라져, 통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sup>50)</sup> 하여 ‘周秦諸子’目を 따로 子部の 首位에 두어 初學者가 찾기 편하게 하였으니 이는 학술발전의 源流에 따라 各家에서 古諸子家の 書를 뽑아 近世子家와 구분하여 따로 한 곳에 모아 둠으로써 지금까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성질여하를 불문하고 억지로 혼합하여 한 類로 해왔던 子部の 단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역시 오늘날의 주제내용에 따른 분류방법으로 보면 같은 주제의 저작이 시대에 따라 분산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후세에 계속되어 奎修는 “諸子에는 자못 哲學에 대한 저작이 많다하였고, 이에 대한 예로써, 儒家, 墨家, 縱橫家 등 순수한 哲學분야만을 택하여, 모두 이 類에 집어 넣고, 또한 道家類와 같이 그것이 순수한 철학이라도 후세에 다른 것으로 잘못쓰인 것은 살펴서 모

50) 張之洞 撰. 『書目答問』.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民國63[1974]. 子部. (周秦諸子, 皆自成一家學術, 後世群書, 其不能歸入經史者, 強附子部, 名似而實非也. 若分類各冠其首, 愈變愈歧, 勢難統攝)

두 宗教類에 포함시킨다.”<sup>51)</sup>고 하고 있다. 또한 劉國鈞은 “四庫部類에 子部가 가장 번잡하여 漢志의 諸子는 당시의 哲學이나 魏晉이후 그 예가 비로소 어지러워졌으니, 이제 일일이 학술상의 성질에 따라 따져서 각류에 집어 넣어야 한다.”<sup>52)</sup>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杜定友는 “子部の 弊는 복잡한데 있다. 대저 經은 道를 신고 있고, 子는 말(說)을 세운 것이니, 江泉이 이르기를 ‘古人之 書에는 반드시 有故를 지니고 말은 理致를 이루고 있다’함과 같이 子書는 무형의 學인 즉 近世의 哲學이니 子部에 있는 術數, 藝術, 神仙, 房中은 子部에 넣을 수 없는 것<sup>53)</sup>”들이다 라고 子部の 雜學的인 병폐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書目答問』에서도 여전히 學術的인 이론이 없는 ‘術數’, ‘藝術’, ‘小說家’ 등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非經非史非子非集’의 類書를 여전히 子部 맨끝에 남겨 두고 있는 등의 문제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

그 중 小說家は 雜事, 異聞, 瑣語 등의 삼종이 있어, 비록 오늘날의 소설과는 그 성격이 다르나 동양의 고대소설이 여기서 淵源되어 현대소설로 발전하였으므로 集類의 文學속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옳을 듯 하다.

또한 특히, 類書는 群書를 채집하여 類로 모아 보기에 편리하게 한 저작이다. 따라서 어느 部로도 포함시킬 수 없는 總類이므로 원래 子部에 속할 수 없으나, 본래 類書가 子部가 아님을 알고도 어쩔수 없이 子部の 맨끝에 붙여 둔 것이므로, 이 역시 叢書와 함께 叢部 내에 편입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51) 查修 編. 『杜威書目十進法補編』. 北平：清華大學圖書館, 民國13[1924]. (凡例. 我國諸子, 頗多哲學著作. 藉擇其純屬哲學者, 如儒家, 墨家, 縱橫家等, 齊入此類, 其爲純哲學而已, 爲後世家作他用者 如道家之類, 則爲整飭計, 全入宗教類)

52) 劉國鈞 編. 『中國圖書分類法』. 臺北：金陵大學圖書館, 民國19[1930]. (導言. 四庫部類, 子部最蕪, 漢志諸子, 本當日之哲學, 魏晉以降, 其例始亂, 今則一一衡以學術上之性質, 分入各類, 不復存子部之名焉)

53) 杜定友 編. 『校讐新義』. 臺北：臺灣中華書局, 民國58[1969] pp. 54-55 (總之, 子部之弊, 其病在雜. 夫經以載道, 子以立言, 江泉曰古人著書, 必持之有故, 習之成理, 卓然成一家言, 而後可以名曰子書 … 子爲無形之學, 卽近世之哲學理學也. 子部所收術數, 藝術, 神仙, 房中, 於言何有, 原不應入子)

그러나 綜合類書와 專門類書의 구분 없이 한 곳에 수록하고 있는 『四庫提要』와는 달리 『書目答問』에서는 『古今姓氏書辨證』과 『龍筋鳳髓判』같이 전문적인 주제를 지니고 있는 類書는 각각 史部 「譜錄類」의 ‘姓名·年譜’와 子部 「法家類」에 분산시키고, 종합적인 類書만을 「類書類」에 두고 있는 것은 『書目答問』이 학술의 성질에 따라 분류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4. 集 部

앞장의 <표 4>에서와 같이 四部書중의 集部는 거의 文學에 편중되어 있다. 처음에는 다만 『七略』과 『漢書藝文志』중에는 겨우 詩賦略만이 있었으나, 『中經新簿』에서 이를 改題하여 丁部가 되었고, 그 후에야 비로소 集部가 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여전히 詩賦에 치중되고 다시 甲, 乙, 丙에 포함될 수 없는 『圖贊』, 『汲書』를 그대로 두고 있어 조리가 없고 난잡하다. 王儉의 『七志』는 그 이름을 『文翰志』로 고치고 비록 그 뜻을 밝혀 「詩賦」만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나머지도 모두 겸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阮孝緒의 『七錄』이 그 이름을 다시 『文集錄』으로 바꾸어서야 비로소 그 이름이 실제와 부합할 수 있었고, 그 범위도 확충되어 모든 문학서적을 함께 모을 수 있었으니, 후에 四部法에서 이에 대한 簡稱으로 集部가 되었다. 그러나 다만 이상의各家類目を 모두 살펴보면, 대부분이 3 내지 5目으로 그 類目이 너무 작다. 따라서 集部の 冊은 간단한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張之洞의 『書目答問』중 集部の 내용을 살펴보면, 四庫法의 「楚辭類」, 「別集類」, 「總集類」, 「詩文平類」, 「詞曲類」 등 5개 類目중에서 「詞曲類」만을 刪去하여 그것을 「總集」과 「別集」에 각각으로 분산하여 수용하고 있어, 외견상으로는 四庫法보다 오히려 그 類目이 적어진 것 같으나, 「別集類」를 漢魏六朝에서 淸에 이르기까지 시대로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히 淸代에 대해서는 ‘淸理學家集’, ‘淸考訂家集’, ‘淸不立宗古文家集’, ‘淸棟城

派古文家集’, ‘清陽湖派古文家集’, ‘清駢體家集’, ‘清詩家集’, ‘清詞家集’ 등 그 流別에 따라 세분하고 있으며<sup>54)</sup>, 또한 「總集類」를 ‘文選’, ‘文’, ‘詩’, ‘詞’로 나누고 있어 실제로는 초학자로 하여금 열람에 더욱 편리한 방법이며, 後人들에게 대강을 아울러 알려주는 분류체계이다.

따라서 洪有豐이 四庫法으로부터 詞曲類를 刪去한 이유에 대해 “다만 옛날에 詞曲을 낮게 생각하여 詩賦와 함께 두지 않았으니, 이는 詞曲과 詩賦가 문학상 실제로 동등한 위치에 있으므로 크게 편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sup>55)</sup>이라고 한 바와같이 아마도 張之洞은 四庫法의 儒敎의인 분류의식 보다는 그 文體에 따른 구분을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清代에서 理學, 考訂, 古文, 駢儷, 詩, 詞등 文體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 別集類와 ‘文選’, ‘文’, ‘詩’, ‘詞’ 등의 문체를 표준으로 삼아 분류한 「總集類」는 문학적 형식을 기준으로 하는 오늘날의 분류체계와도 일치된다. 그러나 「別集類」는 일인 저작의 詩文集이며, 總集類는 여러 사람들의 詩文을 모았거나 혹은 選錄한 것으로 비록 모두 集總解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그 위치를 「楚辭類」뒤에 오도록 한 점은 經部에서 總經類의 성격인 「正經正注」, 史部에서 總史類의 성격인 「正史合刻本」, 子部에서 「周秦諸子」를 각각 首位에 두고 있는 것에 비해 형평을 잃은 것이며, 분류원칙상으로도 당연히 앞에 오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5. 叢書와 別錄

특히, 『書目答問』에서는 四庫法에 없는 叢書와 別錄을 따로 독립시키고 있

54) 張之洞 撰, 『書目答問』,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民國63[1974]. 集部。(國朝人集, 流別太多, 今爲分類列之)

55) 洪有豐 著, 『圖書館組織與管理』, 臺北: 華岡出版有限公司, 民國[1987] pp. 124-144. (惟詞曲二體, 昔以卑品視之, 不與詩賦並列, 不知詞曲類與詩賦, 在文學上實占同等之位置, 殊不能有偏重也)



다.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書目答問』의 분류체계 : 叢書와 別錄

四庫法	書目答問		內 容
항목없음	叢	古今人著述合刻	多人의 合刻. 彙刻. 彙稿. 彙函
	書	國朝一人著述合刻	개인의 遺書, 全書
	別錄	群書讀本	讀本, 文選,
		考訂初學各集	目錄, 檢字, 提要, 年表, 劄記
		詞章初學各集	蒙拾, 品彙, 數略, 集覽
	童蒙幼學各集	綱目, 蒙求	

‘叢書’라는 이름은 唐陸龜蒙의 『笠澤叢書』에서 비롯되었다. 즉, ‘叢勝細碎’(가늘게 부서진다)에서 叢書가 이름지어 졌으나<sup>56)</sup> 실제로 당시에는 詩文集의 別錄이었으므로 『唐書經籍志』에서는 集部에 들어 있다. 또한 『宋史藝文志』에는 子部의 類事類에 포함시켰으며, 이때부터 실질적인 叢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明代 『千頃堂書目』에 이르기 까지도 여전히 叢書는 類書에 편입되어 있었으나, 『澹生堂書目』에서야 비로소 類家와 叢書를 두어 叢書와 類書를 마땅히 구별하게 되었다. 한편 『四庫書目』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서적은 “非經, 非史, 非子, 非集으로 四部書內에 들어갈 수 있는 類는 없다”<sup>57)</sup>고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子部에 類書類를 두고, 叢書를 거두지 않은 것은 아마도 叢書와 類書가 서로 체계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타 다른 四部書目에서도 이 類를 子部<sup>58)</sup> 또는 集部<sup>59)</sup>에 각각 넣고 있으나 이

56) 劉簡著. 『中文古籍整理分類研究』, 臺北: 文史哲出版社, 民國70[1981]. p. 119

57) 紀等 奉勛撰. 『四庫全書總目提要』,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影印本, 1971. 卷135, 子部. (類事之書, 彙收四部, 而非經非史非子非集. 四部之內, 乃無類可歸)

58) 『崇文總目』, 『郡齋讀書志』, 『逸初堂書目』, 『直齋書錄解題』, 『文獻通考經籍考』, 『宋史藝文志』, 『千頃堂書目』, 『澹生堂書目』, 『明史藝文志』 등에는 모두 子部에 類書類가 들어 있다.

59) 好古堂書目에서는 經, 史, 子, 集中에 集部에 總集을 넣고 있다.

또한 子部, 集部 아니다. 그러나 한편 『通志藝文略』등<sup>60)</sup>의 여러 書目에서는 비록 四部書目은 아니나 이를 따로 部類로 만들었으니 事理에 부합된다.

한편 이에 대해 張之洞은 그가 撰한 『書目答問』에서 叢書를 따로 독립하여 한 類를 세우고 있는데, 이는 바로 지금까지 四庫法에서 四部內에 叢書를 억지로 새웠다는 四部分類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다. 張之洞은 이에 대해 그의 自叙에서 “叢書는 학자에게 가장 유용한 것이다. 그 일부중에 있는 群籍을 蒐殘存佚하는 것이 있어 그 功이 가장 중요하다. 그 중에 經史子集이 모두 있어 사부에 예측하기 어려운 형세여서 따로 類로 하였다.”<sup>61)</sup> 하니 叢書一部는 四部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모든 總記의 서적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四部 이외에 總記의 서적을 위한 一部가 이미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書目答問』類書類의 敍에 “類書는 실제로 子部가 아니나 舊例에 따라 이곳에 두니 本原이 있는 것을 들었다”<sup>62)</sup>라고 한 바와 같이 당연히 總類속에 있어야 할 類書를 여전히 子部に 남겨 두고 한 部만을 증가하여 叢書와 別錄만을 수용한 것은 잘못이다. 이는 아마도 明代以前에는 叢書가 많지 않아 그에 해당되는 類目を 아예 두지 않거나, 잠시 子部に 두어도 아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乾嘉 이후 총서간행이 보편화 되어 학자들에게 공헌하는 바가 더욱 커졌으므로, 따로 두는 것이 당시에 叢書를 거두어 두기가 수월하였을 것이나 다만 類書에 대하여 子部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서 子部끝에 두어도 여전히 그 모순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60) 「鄭寅藏書目」, 「內閣藏書目」, 「陸文裕藏書目」, 「清續通志」, 「祠堂書目」, 「藝風堂藏書記」

61) 張之洞 撰. 『書目答問』.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民國63[1974]. 叢書. (叢書最便學者, 爲其一部之中, 可該群籍, 蒐殘存佚, 爲功尤鉅, 欲多讀古書, 非買叢書不可, 其中經史子集皆有, 勢難隸於四部 故別爲類)

62) 張之洞 撰. 『書目答問』.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民國63[1974]. 子部. (類書實非子, 從舊例附列於此, 舉其有本原者)

이후에도 이러한 叢部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그 중 桂質柏은 叢書를 集部의 예에 따라 文學類에 두고 있으나<sup>63)</sup> 이는 文學全集과 叢書를 구분하지 못한 잘못된 것이다. 또한 洪有豊은 자신의 분류법에 따로 총류를 두고 설명하기를 “叢類는 두이의 總類와 서로 같아, 目錄, 類書, 叢書, 雜誌 報章 등을 모두 여기에 편입한다”<sup>64)</sup>고 되어 있으나,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書目答問』의 叢書는 總記의 서적이거나 할 수 있는 目錄, 類書, 辭典 등을各部에 아직 남겨 두고 있었으니, 오늘날의 總類(General works)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書目答問』에는 이외에도 叢書 바로 뒤에 ‘群書讀本’, ‘考訂初學各書’, ‘詞章初學各書’, ‘童蒙初學各書’ 등의 항목으로 別錄을 따로 독립시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蔣元卿은 別錄에 대한 언급없이 四部이외에 叢書를 독립하여 五部法이 되었다<sup>65)</sup>고 하였으며, 또한 劉簡 역시 그의著作인 『中文古籍整理分類研究』에서 『書目答問』을 五分法으로 소개하면서 別錄을 누락시키고 있다.<sup>67)</sup> 더욱이 張錦郎의 『中文參考用書指引』에서는 別錄이 ‘姓名略’과 더불어 단순히 附錄이라<sup>68)</sup>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李日剛은 “『書目答問』 분류체계의 가장 현저한 특성은 무엇보다도 四部이외에 叢書와 別錄을 각각 새로 증설한 것이다”<sup>69)</sup>라고 한 것으로 보아 叢書와 別錄을 대등한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이와 같이 叢書와 別錄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여러 학자들간에 異見이 있기는 하나 다만 그 편제상으로 보면, 叢書와 別錄 兩類에 각각 속해 있는 서적에 대한 서지기술이 다른 경사자집의 그것에 비해 각각한 점이 서로 같고, 別錄에 수록된 책의 내용만을 보더라도 目錄, 提要, 策案, 年表,

63) 桂質柏 編. 『杜威書目十類法』. 濟南: 齊魯大學圖書館出版社, 民國14[1925]

64) 洪有豊 著. 『圖書館組織與管理』. 臺北: 華岡出版有限公司, 民國76[1987]. p. 127 (叢類與杜威氏總類相似, 凡目錄及類書 叢書 雜誌 報章等, 皆編入之)

65) 蔣元卿 著. 『中國圖書分類之沿革』. 臺北: 中華書局股份有限公司, 民國46[1957]. p. 135

67) 劉簡 著. 『中文古籍整理分類研究』. 臺北: 文史哲出版社, 民國70[1981] pp. 43-45

68) 張錦郎 編著. 『中文參考用書指引』. 臺北: 文史哲出版社, 民國69[1980] pp. 117-118

69) 李日剛 編著. 『中國目錄學』. 臺北: 明文書局, 民國72[1983] p. 212 (最顯著者, 卽四部之外, 別增叢書別錄二類…)

筭記, 品彙 등 經史子集 어느 한 곳으로 분류될 수 없는 자료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오늘날의 總類속에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비록 어느 면으로는 前者의 주장과 같이 그 수록된 책의 성격이 讀本類, 考訂類, 詞章類, 童蒙類 등 주로 초학자나 어린 학생들의 입문서라는 점에서 독서가 서목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 附錄된 별도의 서목으로 볼 수도 있으나, 분류체계상에 있어서의 別錄의 성격은 叢書와 함께 叢部에 함께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 V. 結 論

이상에서 밝힌 내용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書目答問』은 淸朝의 탄압정책에 저항하는 잇단 內亂과 아편전쟁이후 계속되는 서양열강의 침략 등 당시의 內憂外患을 교육개혁으로 극복하려 했던 張之洞이 官吏가 되기위해 과거시험을 준비하던 학생들에게 독서해야 할 책을 추천하고, 이에 대한 여러 판본중 신본을 구별하게 할 목적으로 편찬된 일종의 讀書家 書目이다.

그러나 『書目答問』을 편찬한 張之洞의 저작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그 내용 및 규모면에서 四川 學政의 地位에 있었던 張之洞의 당시 정치, 교육, 학술사상 등에 대한 학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점과 『書目答問』에 明記되어 있는 ‘張之洞記’에서 繆荃孫은 助力者에 불과할 뿐, 主撰者는 역시 張之洞인 것이다.

『書目答問』의 분류체제는 學問의 源流를 그 分類의 주체로 함은 물론 서양문물의 東漸으로 신서가 많아짐에 따라 新·舊의 서적을 함께 분류하고 있다. 즉,

첫째, 經部에서 小學을 제외한 순수한 經學만을 「正經正注」와 「列朝經注經說經本考證」으로 兩分하였고, 史部중의 正史를 「正史分合刻本」과 「正史注補

表譜考證」으로 兩分하고 있다. 특히 經部의 「讀本類」이외에 別錄에 「初學讀本」을 두고 있는 것은 초학자에게 독서의 순차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讀書家書目中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분류방법이다.

둘째, 史部에서는 「古史」를 신설하였고, 「地理」에서 '古地志'와 '今地志'와 나누었고, 「政書類」의 '歷代通制'目を '古制'와 '今制'로 나누었으며, 子部에서는 「天文算法類」를 '中法', '西法', '兼用中西法'으로 나누고 있다. 이는 모두 古今의 學術을 구분하여, 그 源流를 밝히려는 의도인 동시에 당시 東西洋의 새로운 書籍을 함께 수록하기 위한 분류방법이다.

셋째, 子部에 「周秦諸子」一類를 새로 증설하였고, 集部에서 「別集」과 「總集」을 時代와 文體로 구분하였고, 또한 經·史·子·集이외에 叢書와 別錄을 독립시키고 있다. 이는 모두 학술발전의 원류에 따라 類目を 새로 신설한 분류방법이다. 특히, 이중에서도 '叢書'와 '別錄'을 따로 독립시킨 것은 『書目答問』의 분류체계상 가장 커다란 특징중의 하나이다.

이상의 특성을 지닌 『書目答問』은 그 후에도 補正과 刊刻이 계속되었을 만큼 후대 서목의 編制上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南通圖書館分類法』, 『天津圖書館書目』, 『江蘇省立國學圖書館分類法』, 『清華學校圖書館分類法』, 『江西省立圖書館分類法』 등은 십진분류법이 중국에 들어오기 이전까지 동서양의 新書를 기존의 舊籍과 함께 분류하기 위해 『書目答問』을 답습하여 전개한 것으로 그 분류체계상으로도 『書目答問』의 가치를 더욱 높여 주고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s of the Shu-mu Da-wen(書目答問)

Jae-Hyeok Park\*

### 〈Abstract〉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Shu-mu Da-wen(書目答問) was selected and compiled by Zhang Zhi Dong(張之洞) at the end of Qing(清) Dynasty as a reading list for students preparing for the state examination and for the purpose of choosing the best from several versions.

Whether it was compiled and edited by Zhang was in dispute. But it is almost certain that Zhang was the main editor because Shu-mu Da-wen(書目答問) showed his political, educational and scientific thoughts and knowledge distinctively.

The followings are characteristics of Shu-mu Da-wen(書目答問) being compared with Si-ku Quan-shu Zong-mu Ti-yao(四庫全書總目提要).

1. In Jing-bu(經部), the Confucian classics are divided into

---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aelim College of Technology

Zheng-jing Zheng-zhu(正經正注) and 'Lie-chao Jing-zhu Jing-shuo Jing-ben kao-zheng(列朝經注經說經本考證). Zheng-shi lei(正史類) is divided into Zheng-shi fen he ke ben(正史分合刻本) and Zheng-shi zhu bu biao pu kao-zheng(正史注補表譜考證). It is the special sorting method to include Du-ben lei(讀本類) in Jing-bu(經部) and Chu xue du-ben(初學讀本) in Bie-lu(別錄) in order to provide first learners for reading order.

2. Shi-bu(史部) included Gu-shi(古史) newly and Di-li lei(地理類) is divided into Gu Di-li(古地理) and Jin di-li(今地理) in Shi-bu(史部). Tian-wen Suan-fa lei(天文算法類) is divided into Zhong-fa(中法) and Xi-fa(西法) in Zi-bu(子部). Zhang distinguished between old books and contemporary ones to find out the origin and include newly published books in the East and the West.

3. Zhou-Qin zhu-zi(周秦諸子) is newly added to Zi-pu(子部). In Ji-pu(集部), Bie-ji(別集) and Zong-ji(總集)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ir style and period respectively. This shows the new sorting method which added classifying system concerning academic development. It is the prominent feature in the compiling system to make Bie-lu(別錄) and Cong-shu(叢書) respective chapters.

With those characteristics the Shu-mu Da-wen(書目答問) had been edited and published several times. It had a wide effect not only on compiling methods of cataloging afterwards and but also on classification systems before decimal classification was introduced in China.